



### ::성경과 유대인 III

이번 호에서는 “성경과 유대인” 세 번째로서  
“유대인과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유대인과 성경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거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 유대인과 성경

조성욱 <<< 총신교회 부목사 / 중동문제연구소 소장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은 누구일까? 이슬람 국가도 그들만의 경전인 쿠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만 국한된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 법과는 달리 정치체제는 왕정국가이다. 이란의 경우는 민족은 페르시아인이지만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이다. 현재 그들의 극단적 이슬람 국가정체성은 1979년에 있었던 호메이니의 이슬람혁명의 결과였다. 그 이전에는 공화정,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이집트는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과 콥틱 정교가 이집트 사회를 양분하며 과거 이집트의 경우 사자들의 책(Book of Dead)이 있으나 그들의 정체성을 대표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을 대표하는 책은 무엇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책은 무엇일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 본다. 그들을 대표하는 책, 한 세대 뿐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동일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책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민족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란 나라이다(물론 현대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창설 1948년 후에 생긴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뿐 아니라 아랍인들도 이스라엘 국민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국회의원 중 약 10%가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 그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과는 전혀 다르고 종교 또한 다르지만 이스라엘 국가라는 형태 안에 들어와 있고 참정권을 포함한 기본 권리가 주어진다. 물론 어떤 면에서 유대인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성경이란 무엇인가? 유대인과 성경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거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자. 이스라엘 유대 산중 지역 소렉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키살론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곳에서 있는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두루마리 성경형태를 가진 상이 있다. 일명 ‘불의 두루마리’ (히브리어 ‘베길랏 예쉬’)라고 부르는 청동상은 성경과 유대역사를 잘 대변해 준다. 그 상 안에는 에스겔 37장 11-14절 말씀의 중 핵심부분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가 장식을 이루고 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도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겔 37:11-14)

두루마리는 성경을, 붙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역사와 관련된 성경형성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오늘날 성경의 형성역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되었는가와 성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론 추측이지만 기록시기 이전에 구전 시기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성경의 기록과정에 대한 성경 안의 자료들을 찾아보자(여기서는 주제가 유대인과 성경임으로 구약에 국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 성경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성경에 나타난 기록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창조기사, 출애굽기사, 제사제도, 성막기록, 정복기록, 일화(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녹, 다니엘, 에스더, 요나, 욥 ...), 가계도.

여기서는 다음 몇 가지 예만 추려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보고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더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방과 수목의 유무니라 (민 13:17-20)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 보고서를 양피지에 기록했을까? 아니면 돌판에, 파피루스에 아니면 노래로, 외워서 ...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보고서들이 성경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 2. 야살의 책(활 노래)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깊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수 10:13)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삼하 1:17-18)

여호수아와 다윗시대에 활노래 야살의 책이 존재했음을 성경은 증언한다.

## 3. 악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삼하 6:5)

다윗시대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곡을 연주하려면 악보가 있어야 하는데 악보의 형태는 오늘날 시편과 같은가 다른가?

#### 4. 편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부쳐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 (삼하 11:14-15)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 (왕상 21:8-9)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대하 21:12)

아람 왕이 가로되 갈찌어다 아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왕하 5:5)

아합의 아들 칠십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왕하 10:10)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부치니 (왕하 10:6)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왕하 19:14)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왕하 20:12)

보발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대하 30:6)

편지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신약의 경우지만 바울사도의 편지가 신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약도 이런 편지 모음들이 성경 모자이크의 또 다른 조각이었지 않았을까?

## 5. 노래(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  
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삼하 22:1)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시로 적어 노래를 불렀고 회  
중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을 만들어나갔다

## 6. 인구조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  
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아에 그 결  
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자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 저희  
우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깎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이었더라 (삼하 24:1-2, 8-9)

구체적인 수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수를 세고 그것을 기록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 7. 성전 건축기록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 팔십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 시브월 곧 이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  
작하였더라 ... 제 사년 시브월에 여호와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십일년 불월  
곧 팔월에 그 설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역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

안이 칠년이었더라 (왕상 6:1, 37-38)

기록방식을 보면 출애굽 후의 경과 년도가 기록되었고 왕의 통치 시기와 성전건축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시브월과 불월은 유대력이 아니고 페니키아력이다)

## 8. 무역기록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육백륙십륙 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왕상 10:14-15)

무역대상국기와 물품의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9. 왕에 대한 기록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사십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상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 11:41-43)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이십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상 14:19-20)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상 14:29)

왕의 사적에 대한 기록은 열왕들의 역대지략에 담겨 있다. 열왕기는 이



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반면에 역대기는 함께 묶어 이해한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는 몇 왕을 예로 들며 왕들의 치적이 기록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다윗 왕의 사중 행적이 선현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현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알파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자난 사사가 다 기록되니라 (대상 29:29-30)

이외에 솔로몬의 사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현자 잇도의 묵시 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대하 9:29)

이외에 여호사밧의 사중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대하 20:34)

## 12. 설계도(식양)

나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찌니라 (출 25:40)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대상 28:19)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하 16:10-11)

성막이나 성전의 경우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토대로 그려졌음을 밝히고 있다.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성막과 성전설계도 기록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께서 사랍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거나 보여 주셨거나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사건을 진솔하게 가감 없이 기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낳게 한다.

## 성경의 작가는 누구인가?

### 1.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찬히 쓰신 것이더라(출 31:18)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양면에 쓰셨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출 32:15-16)

둘째, 다시 쓰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출 34:1; 신 10:4)

성경 형성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나왔다. 하나님은 성경의 씨앗을 뿌리셨고 물을 주셨으며 자라게 하셨다. 이 과정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완성되게 하셨다.

## 2.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출 34:27)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 언약계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  
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신 31:9)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썼느냐의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난제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자체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석한 것을 알 뿐이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 토라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관련 법령들을 제정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로서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체결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보자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모세오경(토라)의 저자로 모세를 들고 있다.

## 3.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에 기록하매(수 8:32; 신 27:8)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실한 시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을 복사한 사람이며 정복기의 사건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다.

#### 4. 레위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신 17:18)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보낸 후에 레위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율법 필사와 전수의 역할을 맡게 된다.

#### 5. 솔로몬

제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왕상 4:32-33)

왕이 잠언을 쓰고 노랫말을 만들며 동식물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왕을 가르치는 교사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사 그룹은 신명기 17장 18절이 말하는 레위그룹이거나 아니면 나단과 같은 선지자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6. 서기관

스라엘은 서기관이 되고(삼하 8:17)

아미엘은 서기관이요(왕상 4:3)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의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왕상 4:26-28)

왕정제도가 생김에 따라 전문 필사를 담당하는 서기관 직업이 탄생하게 된다.

## 7. 선지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렐살랄하스바스라 쓰와(사 8:1)

유대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사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아에 예레미야가 너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렘 36:1-2, 4)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거나 직접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 전수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위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전수되어 온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1. 기록된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를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지 형통할찌라 (왕상 2:1-3)

## 2. 율법책

대제사장 할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하 22:8)

## 3. 언약책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삽계를 그 관들에 기록하셨더라 (출 34:28)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하 23:1-3)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된 언약의 책 율법책인 성경이 어떻게 전수되었을까?

### 1. 노래로 부르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 31:19)

## 2. 묵상함으로(외워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같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수 1:8)

복 있는 사람은 ...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2)

## 3.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는 영회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 28:58)

## 4. 성경을 경외함으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신 29:27)

## 5. 회중 읽기를 통하여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수 8:34) 매 칠년 끝 해 곧 장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찌니 (신 31:10-11)

나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와 말씀의 금식일에 여호와와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렘 36:6)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알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느 8:1-3, 5)

##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나?

오랜 기간 동안 형성 과정을 거쳐 오늘날 형태로 남아 정경으로 결정된 구약성경은 주후 90년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 야브네 회의 결과였다. 수많은 성경사본이 남아 있지만 그 중 다음 네 가지 사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1. 칠십인경 헬라어 사본

칠십인경 헬라어사본(LXX, 혹은 Septuaginta)은 이집트의 지중해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50년경부터 주전 150년경까지 유대인 70명의 장로(혹은 72명)에 의해 번역된 헬라어 구약성경과 외경을 의미한다. 칠십인경의 원본은 히브리어 사본이었다. 70인경의 특징은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인 맛소라 본문의 종류, 내용이나 장의 배열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70인경의 책 배열을 따르고 있으나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은 70인경의 책 배열과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칠십인경의 배열을



살펴보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1-4서, 역대기 1-2서, 에스라 1-2서, 에스테르, 유딧, 토빗, 마카비 1-4서, 시편, 기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 지혜서, 시락서, 솔로몬의 시편,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바룩 애가, 예레미야서신, 에스겔, 수산나, 다니엘, 벨과 드라곤.

맛소라 히브리어 사본과 달리 마소라 칠십인경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본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외에도 헬라어로 쓰인 성문서(일명 외경-유딧, 토빗, 마카비 1-4권, 기도, 솔로몬의 지혜, 시락의 지혜, 솔로몬의 시편, 바룩, 예레미야서신, 수산나, 벨과 드라곤)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칠십인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냥 헬라사본 아니면 Septuaginta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S.P. Brock et alii, *A Classified Bibliography of the Septuagint* [Leiden, 1973]; Emanuel Tov,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굳이 무슨 이유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고유 언어요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닌 외래어요 이방언어인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아직 구약성경(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이 정경으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물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모세오경은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에스라시대까지는 현재 형태로 최종 완성되었다고 보며 필자의 견해로는 최소한 솔로몬시대에는 현재형태의 토라인 모세오경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면관계상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려고 한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 사본은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모국어를 잃어버린 유

대인들에게 거룩한 성경과 이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가르치려는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 2. 쿠파란 사본

1947년은 성경사본 연구에 획을 긋는 중요한 해다. 그 이유는 유대광야 사해 시작 부근의 쿠파란이라 부르는 동굴들에서 발견된 성경사본들 때문이다. 양을 잃은 한 베두인이 양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많은 수의 성경사본들이 발견된다. 그 후 1965년까지 쿠파란지역에서만 11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는 172개의 두루마리 성경의 전부 혹은 일부분이었다. 분량에 있어서 발견된 사본들은 성경 전체의 10분의 일이 채 못 되지만 쿠파란 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사본 전권은 성경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발견된 사본들은 주로 필사본으로 주요 목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14개 조각본), 출애굽기(14개 조각본), 레위기(7개), 민수기(4개), 신명기(25개), 여호수아(2개), 사사기(3개), 사무엘(4개), 열왕기(3개), 이사야(18개), 예레미야(4개), 에스겔(6개), 12소선지(7개), 시편(31개), 욥(4개), 잠언(2개), 룻(4개), 야기(4개), 애가(4개), 전도서(2개), 다니엘(8개), 에스라(1개), 역대기(1개).

쿠파란 사람들은 주로 신명기, 이사야 시편, 창세기, 출애굽기를 많이 남겼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야의 경우 전권을 남겼고, 일명 성전 사본(Temple Scroll)의 경우 신명기의 3분의 1의 분량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

## 3.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

현재 우리 손에 남아 있는 성경사본 중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사본은

1009년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사본이다(B 19 A (L)). 이 사본은 중세 유대인들이 필사한 사본으로 가장 권위가 있다. 이 사본은 1929년에 Kittel에 의해 *Biblia Hebraica*(BHK)로 편집되었고 1969년부터 1976년까지 16명의 학자들에 의해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로 재편집되었다. 특히 BHS의 Apparatus(각주)는 다양한 성경사본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풍성한 성경마당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경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그들이 성지에 머물고 있던지, 매를 맞아 포로로 잡혀가 있던지, 아니면 외국생활을 하던지 간에 물려받은 성경을 필사 보존하였고 때로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어로 번역까지 시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기에 유대인과 성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무와 물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책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그 해답이다. 유대인과 성경이란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

**:: 조성욱** 숭실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충신교회 부목사와 중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